

## 제목: 성경의 두 노선 (12)

**요한복음 2장 9, 16-17 절: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 빛의 책입니다. 이 생명과 빛의 책에서 사람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읽어보면 계속해서 선악과와 생명과의 대치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항상 선악과를 대표하고 주님은 항상 생명과를 대표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처음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부로 성장하게 하는 방법은 **혼인 잔치**입니다. 모든 진리가 두 방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인 잔치' 또한 두 방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혼인 예식 이후에 벌어지는 혼인 잔치는 천년 왕국 안에서 천년 동안 신랑과 공동 왕으로서 통치의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혼인 잔치는 이방 교회 시대에 펼쳐질 혼인 잔치를** 말합니다. 그 증거는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 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5 절, 43 절: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 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은 오일째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날을 **사흘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말하는데 그 장소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 절: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방을 뜻합니다. 갈릴리는 **이방을 뜻하고 사흘 날은 구원의 날이자 아들이 죽고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남편이 의미하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의지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 남편일까요?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다섯 명의 남자를 두었었고 지금도 한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7-18 절: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 육적 수단 방법으로 정욕의 포로가 된것입니다. **주님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은 남편이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인은 내적으로는 야곱의 샘에서 나는 생수를 통해 갈증을 해결했고 외적으로는 여러 남자들 품에 안겨 갈증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육적 수단으로는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어도 먹어도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인의 참 남편으로서 여덟**

**번째 남편이 될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은 우선 다섯 남편을 두었었고 지금 바람피우는 남자는 여섯 번째 남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남자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녀는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샘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녀의 신앙을 지탱해 왔었습니다. **부활의 숫자인 여덟(8)의 의미는 욕을 벗고 영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여덟 번째 남편인 것은 그의 영적 생활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육적 죄의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그의 여덟 번째 남편으로서 영적 남편이요, 영원한 남편이요, 참 남편이 되시며 영 안의 생수의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할 자요 참 만족이 될 자입니다. 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 참 남편을 만나고 누리는 것,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 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 여인은 합당한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 산에 있는가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예/아니오라는 대답에 관련되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속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 23-24 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영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어디에 있던 그곳이 영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안에서 예배드릴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마실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수 있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목마름을 해결할 남편을 만날수 있습니다.**

종교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종교를 발명해 낸 자입니다. 종교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임재 없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행하는 모든 선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 선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 원칙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설교를 통해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한다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지 절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명의 원칙을 따라 생명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9, 16-17 절: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두 나무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사단을 대표하고 생명과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이 상황은 밖의 상황입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이고 몸은 우리의 가장 밖의 부분이고, 이 둘 사이에 우리의 주된 부분인 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지식 나무로 대표되는 사단이 사람의 육신 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23-24절:**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타락한 결과 **지식 나무로 대표되는 사단이 사람의 육신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즉, 밖에 있었던 두 나무가 지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안에, 하나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만이 거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사실상 사단의 악한 본성입니다. 죄가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한다고 말한 것은 **사단이 우리의 육신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의 육신 안에는 죄인 사단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입니다. 우리의 혼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대표하고,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는 사단을 대표하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때, 그 사람 앞에 두 나무가 서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생명 나무이고 또 한 그루의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진리의 씨**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창세기 2장에 뿌려졌고 이 씨가 성장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기서 두 나무가 다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공):**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즉,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이 오는 것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두 나무는 객관적이었지만 로마서 8장에서 두 나무는 주관적입니다. 이 두 나무가 더 이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몸부림쳤던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내 안에 심겨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뽑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날들이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를 더 괴롭혔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날이 왔습니다. 어느날, 로마서 8장에서, 내 영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나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4절:**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는 오늘날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영의 법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는 두 법, 즉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듯이, 우리 안에도 이 두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노선을 따라 살 것인지, 지식의 노선을 따라 살 것인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을 따라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두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거하는 육신에 생각을 두고 육신을 따라 살면, **로마서 8장 5-8절:**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성령님)을 따라 살면,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워싱턴베다니교회 2021 년도 표어는 '하늘의 설계도를 따라 봉사하라!' 입니다. 하늘의 설계도, 즉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